



심화·이기선

자신을 이기는 아라한 되어야

누난 뜨면 사람은 다루기를 잘한다. 싸움에 지면 자신의 삶이 파괴되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을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승만 붙어 있어도 살려는 몸부림이 앞서 나와 많은 남들을 이기려고 한다. 남에게만 이기면 된다 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한다. 아니 어깨에 힘을 넣고 눈을 부라리기도 한다. 마치 사천왕이나 금강력사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남을 위협하고 있다.

겉치레를 부리거나 위세를 날릴 필요가 있을건가. 세상은 속살이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속살속에 스며있는 생명의 정기가 다 빠지고 나면 썩은 갈래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克己

사실 우리들이 남과 싸워 이기려는 위세는 왕왕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본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가. 자신과 맞싸워 이기는 승자가 되어야 한다.

법구경의 말씀에 '진정에 있어서 수천의 적과 혼자 싸워서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김이아말로 참으로 전사중의 최상이니라' 고 하였다.

이 말은 작은 싸움에 존재하는 상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신을 말한 것이다. 사자는 짐승의 맹장이자 사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자는 다른 짐승의 공략을 받지도 않을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맹위와 위력으로 못질 승을 상상한다. 강인한 살육의 힘을 갖고 있다. 상대에 항복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위엄과 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롭게 한가로이 거닐면서 낚잠도 즐기고 맛있는 먹이감을 골라잡아 포식하기도 한다.

자아상실 문턱서 구제 그러나 그 사자가 죽어가는 죽게 된다. 무엇보다도 죽게 될까. 사자 몸속의 별레가 사자를 죽게 한다. 사자신중충이 바로 그것이다. 사자들도 이 사자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경쟁의 상대가 남이라고 생각하여

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겨야 한다고 일러 주신것은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에 나아가서 수천의 적과 상대하여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승(戰勝)이라고 한것이 아닌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 보아라.

이겨야할 상대 나 자신 재미라기 보다 비극적으로 심각하지 않나.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가늠할 수 없어 환각제를 복용, 흡연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외타적인 생활습관이 증대해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남을 의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대물적인것에도 의탁하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자립

은 신앙을 길러야 한다. 절대자가 환상으로 나타나

면 안된다. 절대자는 환상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존적 자아(自存의自我)이다. 자아는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이다. 이 자아를 자신에서부터 발견하여야 한다. 타의적으로 살려는 생각은 자아상실의 문턱에서 광란의 마약방으로 끌려가게 된다. 우리는 자아의 수문장을 눈 뜨게하여 자아의 여래방을 지키게 하여야 한다.

'아침에 도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고 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삼의 길을 찾아나선 사람은 임종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남과 더불어 매일 싸워 이기려 하는 행복의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새벽잠에서 깨어나 저 신선한 대기를 호흡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안을 채워야 한다. 마음속에 비린내를 품고 있으면 그 비린내가 밖으로 풍겨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냄새가 발각된다. 물밖에 비린 냄새가 풍어 있으면 말끔히 씻어내면 가셔질 수 있지만 마음속의 비린내는 가셔낼 수 없다.

이 비린내가 무엇인가. 물 윤리, 부도덕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누누히 말씀하셨다.

물고기, 육고기등이 비린것이 아니라 마음이 욕욕심, 탐욕심, 분노심에 불타고 있다면 이것이 비린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대물적(大物的)인 비린것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심적인 무형질의 비린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들이 이 길로 온갖 힘, 무력, 무기를 동원하여 남을 쳐부수려

말씀따라 행동하면 승리자 탐욕·분노는 마음의 비린내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안을 채워야 한다. 마음속에 비린내를 품고 있으면 그 비린내가 밖으로 풍겨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냄새가 발각된다. 물밖에 비린 냄새가 풍어 있으면 말끔히 씻어내면 가셔질 수 있지만 마음속의 비린내는 가셔낼 수 없다.

이 비린내가 무엇인가. 물 윤리, 부도덕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누누히 말씀하셨다. 물고기, 육고기등이 비린것이 아니라 마음이 욕욕심, 탐욕심, 분노심에 불타고 있다면 이것이 비린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대물적(大物的)인 비린것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심적인 무형질의 비린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들이 이 길로 온갖 힘, 무력, 무기를 동원하여 남을 쳐부수려

문짜짜기 40년 "숨씨로 찬불"

산문박의 10년

시찰장호 소목장인

조 찬 형 씨



"어서오세요. 난로가 고장나서, 당최 꺼낼게 사니까..." 그가 인사걸 사는 모습의 누추함을 가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듯 사투리로 기자를 안내했다. 사무실이란 핏말을 붙였지만 작업장의 소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방이다. 벽에는 운동권 본용 창살과 그의 손길로 이룬 창호를 찍은 사진액자, 불화로 가득하다. 그의 사는 모습이다.

사찰장호 전문제작자 조찬형씨. 권여덟해를 사는 동안 어린시절 몇년을 빼놓고는 문짜 짜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 길로 들어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한약방을 하였던 선친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나가다 목공소란 보면 '저길 배워야 할텐데'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열여섯살 때 데모도로 시작했지."

작업장에 불화가득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일도 보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다. 어릴때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팔래방방이며 깎이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련수의 나무랄이 없을 수 없었다. 이때 따끔한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 대목 신용수선생이다. 안동 하회마을 복원의 대목을 맡았던 신선생으로부터 나무고르기부터 말리거나 "짜맞추기를 배웠다. 그의 말마다 나 "뿌리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선생없는 재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신용수선생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지니며 살아간다.

사찰장호 제작 외길 40년이 순조로왔던 것만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이 있었듯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걸 해서 밥벌이나 될까." 목수일

일을 하는 것이구나." 조찬형씨는 창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빗살문으로, 때로는 완지문으로. 때로는 연꽃문양의 꽃살창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조상들의 살림살이를 보면 어느 것하나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드나드는 문에 온갖 정성을 쏟은 것을 보면 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리란 짐작이 어렵지 않아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의 쓰임새와 풍격에 따라, 또는 주

"일할때 아무생각 말라"...5백여 법당에 온 정성

이 힘들 뿐만아니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사람 부러듯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를 괴롭혔다.

그만 풀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 알뜰미는 사시와 합판문짜이 전통창호를 만들어내던 때였다.

그런데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 구며 한양장 제사상 등 나무로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찰장호 하면 그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만큼 숨겨있는 소목장은 또 알려졌다.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은 물론 고궁, 윤광림의사 사당 등 유명하다 하는 곳은 그의 숨씨가 담겨 있다. 사찰만해도 수덕사 명부전을 비롯 구인사 삼광사 지관전 등 5백여곳에 이른다.

호는 그의 자랑거리다. 지금은 복원 작업중인 경북공 항호를 맡아 힘들었다. 3월부터는 아예 작업장을 경북공으로 옮길 작정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지 밀 위해 했다는 것은 말도 안돼. 잘 하려고 하다보니 오래 했고, 이렇게 된거지"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늘상 입에 붙은 말처럼 맑은 마음을 강조한다. "일을 할 때는 아무생각도 말아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이 일을 접어치우라"고 호되게 나무란다.

그는 구지림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몫으로 여긴다. 창호를 배우러 왔다가 구지림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젊은이도 더러 있지만 들려줘야 할 얘기를 들려준다는 생각이 다.

법당의 문짜 하나를 짜도 스님네들이 밭이 달도록 몰아다니면서 시주한 돈으로 하는 건데 허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법당은 부처님을 비러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막으로 추스리게 하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1천배 올린후 시작

그래서 그는 법당을 만들 때는 제자들 보란 듯 목욕제하고 마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법당에 가 108배, 1천배 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20여년전 경기도 안중의 삼복사 일을 할 때 내리 3일 부처님 꿈을 꾸었다.

"부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찬찬히 나를 보고 계시더라구. 사찰장호 짜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부처님

인의 마음쓰임을 좇아 문을 치장했을 것이다. 완자문, 빗살문, 꽃살창... 꽃살창은 대개 사찰 대웅전의 정면 출입문인 어간과 옆문에 쓰였다. 무늬는 주로 연꽃이다. 혼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찬란함을 피워내는 연꽃과 같아서, 그 마음에 따라 그려 했으리라.

완자문은 어떤가. 넓은 판각 또는 직사각의 틀에 사각형의 반듯함이 있다. 단정하면서도 나무결의 은화함이 깃들여 있어 휴사 풍류를 알외 품격을 잃지 않는 사대부의 내면을 표현한 듯하다.

길게 설명을 늘어놓은 조찬형씨는 이내 속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40년 넘게 창호일만 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철학이라 말해도 관할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예산=정성은 기자)

계룡산 자광사 '95년도

자광불교 교양대학 신입생모집

- 모집전형
 - 입학자격: 기초과정 - 불교를 믿고 선행하는 자, 일반과정 - 불교교양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일시: 기초과정 - 매주 일요일 오전 09:30 ~ 10:50 (80분), 일반과정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20 (80분)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사진 반명함판(3x4cm) 3매
 - 수강료: 기초과정 - 연 12만원, 일반과정 - 15만원(입학·등록금 없음)
 - 입학정원: 기초과정 - 100명, 일반과정 - 50명
 - 교육기간: 1995. 3. 1. ~ 1996. 2. 28 (12개월)
 - 원서마감: 1995. 1. 15. ~ 1995. 2. 28
- 교양과정 교과 법사님 및 교수진

과 정	교 과	법사님 및 교수진
기초과정 (1년차)	불교기초교리	김정락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불교개론	한보광 스님 (동국대학 정과원장)
일반과정 (2년차)	불교사상	김정락 스님 (삼일선원 상임법사)
	불교역사	안혜경 스님 (금강선원 주지)
상단법문	법사님	이원행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교수님	이기영 박사 (한국불교 연구원 이사장)
특 강	법사님	오형근 박사 (동국대학 대학원장)
	교수님	김중 박사 (동국대학 불교대학장)
		정병조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기 박사 (전북대학교 교수)
		이영래 박사 (충남대학교 교수)
		비룡 큰스님, 석주 큰스님, 원담 큰스님, 숭산 큰스님
		유일탄 스님, 김현해 스님, 전설정 스님, 서돈각 박사, 김지연 박사, 송석구 박사

계룡산 자광사 305-36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번지 TEL. (042) 822-9219-20, 822-6472-3 / FAX. (042) 822-8304

자광불교 교양대학

한국불교연구원

정기법회변경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토요일에 개설하던 정기법회를 다음과 같이 목요정기법회로 일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법회에 참석지 못하셨던 분들은 본 연구원의 목요정기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 목요일 오후 7시부터
- 대상: 제한 없음
- 문의: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575-6167-8
- 법회일정

일시	강사	내용
3월 9일(목)	이기영 박사 (본원 원장)	불교용어해설
3월 23일(목)	정병조 교수 (동대 교수)	반야심경
3월 16일(목)	정병조 교수 (동대 교수)	
3월 30일(목)		

사 단 법 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원효학당 상설강좌 불교개론

본 학당에서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개론강좌를 개설합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와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교연구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 학당의 불교개론강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 기간: 3월 9일(시)부터 3개월간
- 장소: 한국불교연구원 법당
- 강사: 이기영 박사 (본원 원장) 권기종 교수 (동대 교수) 정병조 교수 (동대 교수)
- 수강료: 10만원
- 문의: 학당사무국 (TEL. 575-6167-8)

사 단 법 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